

전남 농산물 對日수출 비상

日, 배·파프리카 등 잔류농약검사 내달 대폭 강화

일본이 오는 5월 29일부터 수입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기준을 크게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전체 수출 농산물 가운데 절반 이상을 일본에 판매 온 전남지역 농가들의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농산물의 주요 수출국인 일본이 오는 5월 29일부터 잔류농약 관리제도를 현행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에서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상당의 농산물을 일본에 수출했던 지역 농가들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전남도는 특히 ▲최근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농산물의 잔류 농약을 자체 검사한 결과 일부 품목에서 잔류 농약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발견되고 ▲인삼 등 일부 농산물에는 미등 록 농약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감치에 들어가는 배추나 고추, 마늘 등을 재배하는 농가는 특정 수출단지에 모여 있

지 않아 관리가 어렵다는 점 등에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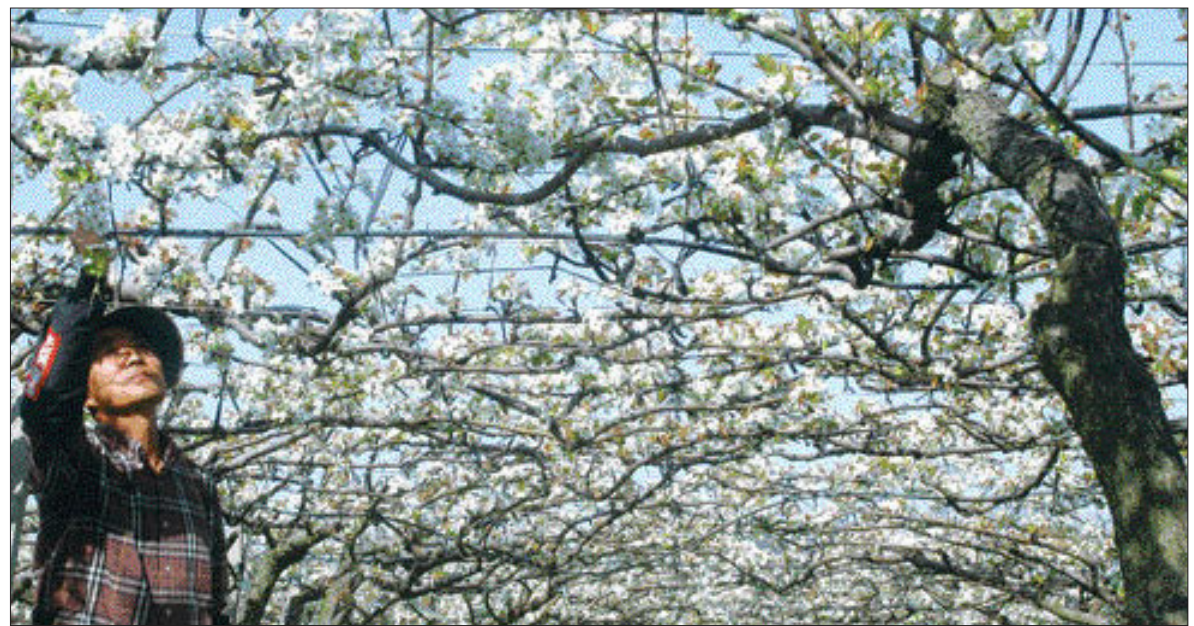
전남도 관계자는 "최근 지역 농가에서 사용되는 농약 중 일본 내 기준이 없는 농약 등을 조사, 13개 농약성분 14건을 일본의 기준에 반영시켰으며, 파프리카 등 주요 수출품 재배 농가를 상대로 허용된 농약만 기준치 이하로 사용하도록 교육을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본의 새 제도가 농산물 수출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는 예측하기 힘

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한해 동안 일본과 미국, 중국, 홍콩 등지에 모두 8천863만8천 달러어치(846억원)의 농산물을 수출했으며, 이 가운데 52.6%인 4천664만3천 달러어치(445억원)의 농산물을 일본에 판매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국내 신선 농산물 수출액의 50.4%인 3억640만 달러(2천923억원)가 일본에 수출됐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일본이 수입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기준을 크게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배 등을 재배, 수출해온 전남지역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은 배 꽃에 인공수분하는 농민. <광주일보 자료사진>

“외환銀 헐값 매각 ‘윗선’ 조사”

감사원, BIS 조작 조직적 개입 의혹 규명

(국제결제은행)

검찰, 금품거래 수사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은 매각당시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인위적으로 왜곡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금감원과 외환은행 상층부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밝혀내

기 위해 조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외환은행 매각실무자인 허 모 차장(사망) 컴퓨터에서 BIS비율을 다양하게 산출한 근거자료와 수치를 금감원에 e메일과 팩스 등을 통해 4차례 보낸 파일을 확보했다"면서 "금감원과 외환은행

이 BIS 비율을 금감위에 보고하기 전 사전조율한 경우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이 관계자는 "금감원의 BIS 비율 사전 조율과 백재흠 은행감독국장장의 압력에 따른 허위보고 과정에 대해서도 백 국장 윗선의 보고 라인인

금감원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까지도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 중수부는 외환은행 매각실무직원이었던 전승준(구속)씨가 돈을 받고 BIS 비율을 조작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11일 특경가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수감된 전씨가 엘리트홀딩스 박순풍 대표로부터 BIS 비율 조작 관련 청탁 대가 돈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조사 중이다.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명물 '무안 탄도만 빨낙지' 되살린다

목포해수청, 수산자원회복시험사업 선정

"목포·무안의 명물 낙지를 살리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오염되지 않은 갯벌로 먹이가 풍부하고 서식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름난 무안군 탄도만 자율관리공동체 연안 낙지자원을 수산자원회복시험사업으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전국 생산량의 57%를 점유하고 있는 전남지역의 낙지 어획량은 지난 1994년도에 9천t에 달했으나, 2004년도에는 5천213t으로 10

년 만에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갈수록 급감하고 있다.

목포해수청 이에 따라 전남지역 낙지 주산지인 무안군 해지면, 현경면, 망운면, 운남면 등 4개면 13개 어촌계 213명으로부터 탄도만 자율관리공동체 연안의 낙지를 수산자원회복시험사업으로 선정해 올해부터 오는 2008년까지 3년 동안 낙지 되살리기에 나섰다.

목포해수청은 이번 시험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낙지의 수명이 일반적으로 1년생으로 알려

져 있어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험사업은 2단계로 구분해 추진하고, 실시 완료 후에는 낙지와 소규모 자율관리유형에 포함되는 어촌에 대해서도 전국 해역으로 확대하는 등 3단계사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 낙지에 대한 ▲과학적 자원조사 및 평가 실시 ▲통발과 연승업계간 의견조율 ▲불법어업 단속 강화 등 효율적인 자율관리를 통해 낙지자원의 회복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社告

제33회 光日 보훈대상

광주일보사가 제정한 光日 보훈대상이 올해로 33돌을 맞이합니다.

광주지방보훈청 후원으로 시상하는 光日보훈대상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꿋꿋하게 삶의 터전을 꾸려 가는 모범 국가 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게 자활의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하신 국가 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예우하고 돕는 일은 우리 모두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추천을 바랍니다.

■포상 추천 대상자

-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국가 유공자 및 그 유가족으로서 자립에 성공한 사람으로 타의 모범이 된 사람
- 중상자의 배우자로서 중상자의 정신적·신체적 지주가 되어 삶의 의지와 보람을 갖도록 조력한 사람
- 접 수 : 2006년 4월 26일(수)까지
- 발 표 : 2006년 6월 1일(목) 광주일보
- 시 상 : 5명(상금 각 100만원 및 부상)
- 시상일시 : 2006년 6월 6일(화) 오전 10시30분
- 장 소 : 광주시민회관(광주공원내)
- 문 의 : 광주지방보훈청 지도과(062-650-0136)

주최: 光州日報社 후원: 광주지방보훈청

제2회 보성녹차마라톤대회
4월 14일 바강
www.boseongmarathon.net

제51회 호남예술제
4월10일~18일 접수
www.kwangju.co.kr (호남)광주일보
(062)220-0541·222-8111

한명숙 총리 인사청문회 여야 17~18일 개최 합의

한명숙 총리 지명자의 국회 인준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7일과 18일 이틀간 개최된다. <관련기사 3면>

열린우리당 김강민,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여야는 17~18일 이틀간 청문회를 개최한 뒤 19일 본회의에서 총리 임명동의안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립한울당 장학55년 역사상 최후
남부대학교
http://www.nsbu.ac.kr
세명대학교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sc.ac.kr
국가 36년 정보의 메카니즘
SINCE 1970
국내 최고의 물가전문지
총물價情報
http://www.kpi.or.kr
한국물가정보
TEL:1577-7300 FAX:1577-4802

난, 변하고 싶어

내가 변덕쟁이랴?
천만의 말씀!
난 싱긋하게 변하고 싶은 10대라구.
센스틱 뽀뽀뽀뽀가 있으니까
톡톡 터지는 멜론향과 새콤달콤한
과일향까지 - 입술이 변한다.
싱긋하게 -

가장 좋은 약은 사람입니다
국제약품
http://www.kukjeopharm.co.kr

아름다운 입술
SENSTICK

센스틱이 신세대 감각에 맞는 이유
- 혁신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상급한
- 명물향 천연의 과일향이 오래 지속됩니다
- 입술에 최위선으로부터 보호되어 입술
- 치료효과 및 보습효과로 항상 생기가 넘칩니다.
- 그다만을 위한 변신의 입술을 가져다 줍니다.